

私立大學의 財政難



弘益大 總長 李 勉 榮

최근 關係 當局에 의해 일부 私立大學의 不正과 非理가 밝혀지면서 私立大學에 대한 社會的 信賴度가 극히 低下되고 있음은 심히 우려할 일이다. 私立大學의 부정과 비리는 私學 運營者들의 教育者의인 素養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大學教育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不信을 초래할 위험마저 있다. 大學의 運營을 責任지고 있는 總長이나 教授가 마치 우범자인 양 取扱당하고, 배우는 學生들이 自身의 스승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學問의 傳授는 물론이요, 이를 통한 人格의 陶冶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神聖해야 할 學問의 殿堂에서 道德的으로 指彈받아 마땅한 不法과 不正이 恣行되고 있다면, 이것은 해당 學校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社會가 시급히 解決해야 할 심각한 問題이다. 私立大學에서 일어나고 있는 不正入學, 寄附金入學 등의 脫法的인 행위들은 私學 運營者의 잘못된 認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根本的인 原因이 私學의 劣惡한 財政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私學들은 運營 資金을 學生들이 납부하는 登錄金에 전적으로 依存해 왔다. 그 결과 많은 私立大學들이 부족한 財政을 메우고 文教部에서 권장하는 財團轉出金을 확보하기 위해 非正常的인 運營 資金 조달에 끊임없는 誘惑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며, 이 점이 바로 私立大學 운영에서 秘密主義, 非公開主義가 慣行으로 되어 온 根本的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 社會는 각 部門에서 民主化·開放化의 熱氣가 고조되어 있으며 學園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學生들과 學父母들은 登錄金이 정당하게 策定되고 使用되는지 알고 싶어 하며, 公正한 入試管理를 통해 學生選拔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私立大學들이 오늘의 難關을 克服하고 하루속히 大學 本來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大學 運營에 있어서의 非公開主義를 버리고 學校의 財政을 公開하여 의혹의 소지를 없애고 적절한 財政 運用, 公正한 學生選拔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의 私企業도 그 公正性을

인정받기 위해 公認會計士의 감사를 거쳐 決算公告를 내고 있는데, 하물며 그 公益性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大學과 대학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결산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립대학 스스로 공익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學校財政의 公開는 당장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지만, 公認會計士에 의한 外部監査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신문이나 교내 신문에 결산 공고를 함으로써 私立大學이 당면하고 있는 財政的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大學의 모든 構成員들로부터 協助와 理解를 구해야 할 것이다.

私學의 設立은 財團의 收益用 基本財産 확보를 전제로 하여 인가되고 있다. 사학 재단의 수익용 기본 재산은 재단 전출금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설립이 인가된 후에도 私學財團은 비정상적인 운영 자금 조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익용 기본 재산 확충을 통한 재단 전출금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敎職員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大學이 주인 없는 일부 公企業처럼 不實化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長期的인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동안 私立大學들은 國·公立大學 못지않게 人才를 양성·배출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지대한 貢獻을 해 왔다. 그러나 私立大學에 대한 國家의 財政的인 지원은 全無한 실정이며 국·공립대학 一邊倒의 偏重된 지원만이 있어 왔다. 良質의 敎育이 국가의 밝은 장래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현재 私立大學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對症的인 處方만을 내릴 것이 아니라 보다 計劃的이고 長期的인 안목으로 多角的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學生들이 재학중이나 졸업 후에 받는 지원과 혜택에 비하면 私立大學 學生들은 재학중의 지원은 고사하고 졸업 후에도 相對的인 不利益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登錄金 凍結과 관련하여 私立大學에서 일어난 극심한 學生騷擾는 그 동안 累積된 學生들의 不滿에도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大學生 중 私立大의 學生이 차지하는 비율은 75%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敎育政策은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국가의 교육 예산 분배 등 여러 면에서 서로의 이해가 相衡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립대학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를 국가의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나아가 國·公立大學과 私立大學의 均衡的인 發展을 도모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